



土民 李樹雨 | 울산 향토사연구회 감사
(leeto01@hanmail.net)

울산의 젓줄 태화강역을 찾아서

1. 서론

약 6,000년 전 울산의 이수삼산(二水三山)¹⁾ 들판은 모두 바다였다고 한다. 이곳 태화강도 울산만의 하구로 태화강과 동천강을 따라 자연제방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 배후지인 달동과 야음동 일부(울산광역시 남구)는 배후습지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습지를 따라 여천강이²⁾ 흘렀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으로는 바다가 아니다.³⁾라고 말한다. 고려시대 문신 정포(鄭浦, 1309~1345)는 벽파정(碧波亭)에⁴⁾ 올라 “겹겹 쌓인 돌은 가을언덕에 의지하고 대파리 불며 늦은 물가에 누웠네. 뱃사람 이곳을 벽파정이라 하는데, 비석은 깨지고 명도 이미 없어졌네. 비 지나간 뒤 모래 흔적 희어지고 연기 사라지니 물빛 더욱 푸르네. 당시의 노랫가락 차마 들을 수 없어 돛대에 의지하여 부질없이 눈물 흘리네⁵⁾”라는 시를 읊었다.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에 “지금의 삼산은 오산⁶⁾이었으며, 그 위에는 벽파정이라는 유명한 정자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듯 울산은 예로부터 잣나무가 우거져 자연경관이 좋고 물이 맑아 인심이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울산의 젓줄인 태화강의 강역과 하천을 따라 울산의 태화강의 발원지와 역사유적지와 명승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울산의 연혁

울산은 <삼국사기> 권34, 지3, 지리1조에 고려시대는 동안군과 우풍현이라 불렀다. 동안군은 본래 생서랑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경주에 합속되었다. 영현이 하나 있다. 우풍현⁷⁾은 본래 우화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울주에 합속되었다⁸⁾라고 적고 있다.

더불어 <고려사> 흥례부 ‘울주’ 조에서는 “울주는 본래 굴야화촌인데 신라 파사왕이 차지하여 현을 두었다. 경덕왕이 하국현(하서현이라 하기도 한다)으로 이름을 고치고 임관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는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1018년)에 방어사를 두었다. 경덕왕이 우화현을 우

1) 二水三山: 태화강과 동천강, 삼산은 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鷲山을 이룸.
 2) 文殊山을 울산의 진산으로 볼 때 우백호인 신선산 아래를 흐르던 냇강.
 3) 울산의 입각화와 해변 변동, 이영춘저, 울산문화원, 2000, p-131.
 4) 東國輿地勝覽 題詠條에는 벽파정은 鷲山에 있다. 碧波亭 비문은 이미 파손되어 명문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
 5) 臺石敬秋已 菱篋臥晚汀 舟人是碧波亭 碑壞已無銘 雨過沙痕白 燃消水色青 當時歌調不堪聽 倚棹渺空零
 6) 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오산은 군의 동남쪽 십리에 있다.
 7)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우풍현은 지금의 우불산 아래에 있다라고 적고 있다.
 8) 東安郡本生西郎郡景德王改名今合屬慶州領縣一慶風縣本于火縣景德王改名今合屬蔚州. (三國史記 卷 34, 志3, 地理 1)

풍현으로, 울포현을 동진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모두 합속시켰다. …(중략)… 일설에는 신라 말에 학이 날아와 울었으므로 신학성⁹⁾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계변성이라 하기도 하고, 개지변이라 하기도 하며, 화성군이라 하기도 한다”¹⁰⁾라고 적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울주 울산이라 불렀다. …(중략)… 통화 9년(성종10년, 991년)에 공신 박윤웅의 고향이라 하여 다시 흥려부라 하였다. 후에 울주라 고쳤으나 연대는 알 수 없다. 본조 태종대 영락 갑오면(태종 14년)에 울산군이다”¹¹⁾라고 하였다. 현세에는 1962년 6월 1일 울산시로 승격하였고, 1997년 7월 15일에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였다.¹²⁾

2.2 울산의 형국

울산의 조산(祖山)은 가지산으로 그 래룡(來龍)을 따라 정족산 아래 남암산에서 꿈틀거리려 문수산¹³⁾ 문수암으로 이어간다. 문수산은 울산의 진산으로 왕생이들을 우측으로 백호인 신선산이 있고, 맞은편 좌측에는 청룡인 함월산이 있다. 울산의 혈자리는 예로부터 은월혈¹⁴⁾과 한림혈¹⁵⁾ 그리고 왕생이혈¹⁶⁾이라 불렀다. 다시 래룡은 신선산과 돌절산을 따라 큰 고갯마루를 지나 태백준령의 끝자리인 대현면 가리산에 다다라 머문다. 가리산은 태화강을 건너 무리룡산과 얼굴을 마주하며 낙동정맥을 다한 무리룡은 울산시 동구의 낙화암과 남구의 처용암¹⁷⁾을 오가면서 산룡(山龍)과 잠룡(潛龍)을 교번하며 여의주를 농하고 있다.

울산 지방의 풍수사들은 예로부터 울산의 진산으로 ‘무룡산이다’, ‘함월산이다’, 또는 ‘문수산이다’라고 제각각 부르고 있다. 본래 진산이라 함은 조선시대 풍수가 난분할 때 지방 고을의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안위를 지켜주던 산을 진산이라 칭했다. 풍수학에서 주산(主山)인 진산은 래룡맥절(來龍脈節) 중에 높게 솟은 산을 칭하는 것으로 대개의 고을이나 마을민들의 안녕을 빌어주던 산을 진산(鎭山)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라말 도선국사가 터 잡은 울산은 태화강과 동천강이 합수하는 학성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함월산이 진산이 된다. 그러나 무룡산의 래룡을 따라서 낙

동정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선 함월산의 래룡은 치술령을 비롯하고, 북으로는 경주 토함산 아래 양남의 조항산을 오르고 서로는 천마산을 올라 백운산을 아우르고 고현산으로 치달린다. 또한 치술령에서 북을 향한 래룡은 조항산을 따라, 하나의 룡은 동남해로 문무암으로 입수하고, 또 하나의 용은 동으로 무룡산을 따라 땡바위 낙화암으로 잠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울산의 진산은 무룡산이라 부르면 되는 것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신증국여지승람> 산천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형국은 물줄기를 보는 수룡체계에서 본 것으로 이는 산룡체계에서도 영향을 준다. 낙동정맥은 (낙수의 동편인 산줄기를 지칭한 것으로 곧 낙동강의 동쪽 정맥을 이룬다) 낙동 향리 중에서 부산, 양산, 울산 등은 산룡체계인 낙동정맥에 걸린다. 수룡은 밀양, 창녕, 의령, 진양, 합천을 감싸 흐른다.

2.3 울산 태화강의 발원지

세계의 4대 문화는 모두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화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서호리, 두서면 내와리와 경주시 내남면에 걸쳐있는 백운산¹⁸⁾ 탐골지에서 발원하여 대곡천을 따라 약 47.54km의 물길을 형성한 후 울산시를 가로질러 흐른다. 백운산 북쪽에는 삼강봉이 우뚝 솟았는데, 이곳 삼강봉에서 세 곳의 방향으로 물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

9)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계변성에 있다. 군의 동쪽 6리에 있으며, 김곡의 말한바 계변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에 내렸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적고 있다.

10) 蔚州本屆阿火村 新羅婆娑王取之置縣 景德王改名河曲縣(一作河西)爲鎭縣郡鎭縣高麗切更今名 顯宗九年置防禦使 景德王改于火縣爲虞風縣栗縣爲東津縣……一云羅季有鶴來鳴 故稱神鶴城 一云戒邊城 一云皆知邊 一云火城郡 別號鶴城 成廟所定 屬縣二.

11) …統和九年以功臣朴允雄之鄉復號興陽府後改知蔚州其年代未詳本朝太宗代永樂甲午改蔚山郡… (慶尙南道地理志) 慶州道 蔚山郡.

12) <蔚山廣域市史> 蔚山市 年表 參照

13) 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군의 서쪽 25리에 있다.

14) 옛 울산제일중학교 터

15) 옛 울산 농업고등학교 터

16) 현 울산학성고등학교 터

17)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처용암은 개운포 바다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처용이 바위 아래에서 나왔다. 하는데 경주 월명혈조에 자세히다. 라고 적고 있다.

18) 울산광역시 울주구와 경상남도 밀양시,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의 접한 산으로 높이가 885m이다.

다. 이 봉우리에서 동남쪽으로는 미호천과 대곡천을 따라 태화강으로 흐르고, 동북쪽으로는 큰골을 따라 북안천과 활천천을 따라 형산강으로 흐르며, 서쪽으로는 상북면 소호리를 가로지르는 동창천을 따라 낙동강으로 흐른다.



(그림 1) 백운산 삼강봉¹⁹⁾

(그림 2) 울산의 발원지 (백운산 탐골지)

이 태화강의 발원지²⁰⁾는 울산의 지형을 따라 서쪽방향에서 동쪽방향으로 물길이 흐르는데, 하류로 내려오면서 언양읍의 반천천, 대곡천 등 많은 하천²¹⁾과 합류하여 생태하천인 울산시를 가로질러 하류인 천혜의 울산항만의 수계를 이룬다.

(표 1) 울산의 수계(자료 참조: 울산시)

유역 면적	643.96km ²
유로 연장	47.54km
국가하천 구간	11.28km
지방2급 하천	36.26km(백운산 탐샘골~구 삼호교)
유입지류	57개 하천(제1지류 23곳, 제2지류 34곳)
유역 위치	동경 129° 0' ~129° 25', 북위 35° 27' ~35° 45'
서식 동/식물	423종(조류 48종, 어류 41종, 식물 97종 등)

2.4 울산 태화강역의 역사유적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은 상류인 울주군 두서면 대곡천을 따라 강과 하천의 주변에는 수많은 역사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 우선 상류인 대곡천에는 예로부터 신(神)과 선사인(先史人)들의 영혼을 이어주던 큰 돌벼랑이 있다. 바로 그 돌벼랑에는 국보 제147호인 천전리 암각화와 제285호인 반구

대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이들 두 암각화 가운데 천전리 각석 상단부에는 동심원을 비롯하여 나선문 등 다양한 기하학적인 그림들과 육식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하단부에는 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왕족들의 기록들이 각석되어 있다. 그 물길을 따라 약 2km 정도 하류로 더 내려가면 돌벼랑 아래 다양한 바다 고래를 위주로 한 그림들과 육식동물들이 어우러진 반구대 암각화가 나타난다. 이 암각화의 동쪽에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고래류와 상어 등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서쪽에는 육식 동물들의 그림들이 선새김과 면새김으로 암각화되어 있다.

이 두 암각화의 그림은 이 고을을 지키며 살았던 옛 선사인들이 그들이 추앙하던 신들에게 소원과 소망을 빌어가며 수렵이나 어로를 통한 축원과 영혼의 교감을 이루었던 곳으로 믿어진다. 우선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대해 살펴보자. 천전리 각석²²⁾은 동향을 한 자연석 전면에, 덧새김이나 쪼고 갈아 낸 그림들이 못 세월을 간직한 채 비스듬히 서서 바라보고 있다.

이 자연석은 가로 25m에 세로 3m의 경사진 자색의 돌로서 70°의 경사를 가진 암반이고, 동남향을 바라보며 위치해 있으며, 각석에 나타난 그림이나 글씨의 내용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한 선사인들의 예리한 심경을 볼 수 있다. 이 각석

19) 사진제공, 울산학성고 동문중수지리학 동호회.

20) 발원지는 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원, 하원이라고도 한다. 발원 샘의 조건으로는 첫째 하천이 바다 또는 분류로 유입되는 하구, 또는 강구에서 가장 길이가 긴 지점에 위치해야 하고, 둘째 물이 연중 마르지 않고 솟아나거나 흘러 나와야 하며, 셋째 사람들이 마셔 해롭지 않은 물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발원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1,240m) 뿔벼위,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910m) 탐골샘, 울주군 상북면 고현산(1,033m) 외항저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수리 수문학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의 탐골샘에서 발원하여 울산시 매암동 부근의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최장 47.54km로 가장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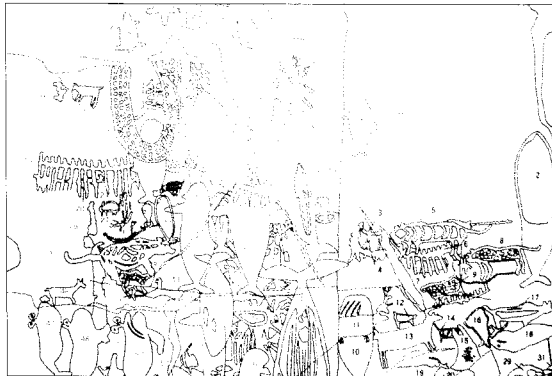
21) 하천은 일반적으로 산에서 시작하여 하구를 거쳐 바다로 흘러든다. 처음 시작하는 물줄기를 지류 혹은 1차 하천이라 부르고, 돌이 모이면 2차 등등 하류로 내려올수록 치수가 높아진다. 건설교통부 한국하천 알람에서도 하천의 길이는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을 나타내는 최상류의 발원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22) 이곳 천전리 각석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 그림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조각된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그림 속에는 자연주의적인 형상의 사슴이나 물고기, 반수인 동물 등이 그려져 있고, 마름모꼴, 타원형, 기하학적인 선사인들의 그림들로 각석의 상단부에는 돌로 쪼은 그림들로 그려져 있고, 그 하단부에는 섬세한 선각으로 먼저 새긴 그림도 혼재되어 있어,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없애지고 또다시 새겨진 그림들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시대로 여겨지는 왕족들의 기록과 다양한 화랑도들의 글들도 예리한 칼로 각석되어 있다.

들은 한 시기에 모두 다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다. 선사시대에는 그림 전면에 강한 돌로 여러 면을 쪼아서 새긴 먼그림들을 그렸으며, 그다음 시대에서는 예리한 철편이나 청동으로 신새김의 그림들을 그렸다. 그다음 시대에서는 문자로 기념적인 내용들을 각석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



〈그림 4〉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각석의 전면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선사시대에는 모난 돌을 사용하여 돌 전면에 도들새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림과 같다. 지금은 각석된 돌의 우측 상단 부분에도, 잘려나간 돌에도 여전히 다이아몬드형의 그림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각석 전면에도 희미하게 돌로 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온 천전리 각석이 각석된 전면을 더 확장하여 볼 수 있으며, 현세에 와서 수많은 풍파와 사람들의 훼손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험한 수위를 드러내고 있다.

이곳 대곡천에서 주위의 경관을 바라보면 계곡을 휘감아 굽이친 골에 깊이 폐인 골짜기의 맞은편 절벽 아래로는 예리한 칼로 빛어내 마치 구들장 같이 켜켜이 잘리어 떨어져 나갔

음을 볼 수 있다. 이 골짜기는 수평으로는 갑자기 불어난 거대한 수마에 활쫓고 맞은편은 굽이친 물살에 폐이고 수직으로는 잘려 무너지면서 수많은 세월을 버티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거대한 계곡에 펼쳐지는 풍광은 예나 지금이나 실로 장관이다. 특히 여름철이면 시원한 골바람을 타고 온 바람은 지긋지긋한 불벌더위를 녹이고, 겨울철이면 음산한 바람에 온 몸이 얼어 버린다.



〈그림 5〉 대곡천 천전리 각석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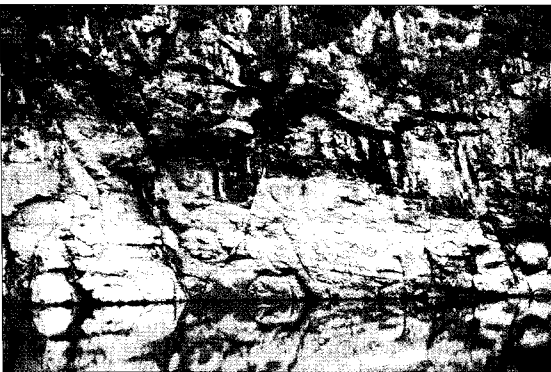


〈그림 6〉 대곡천 반구대서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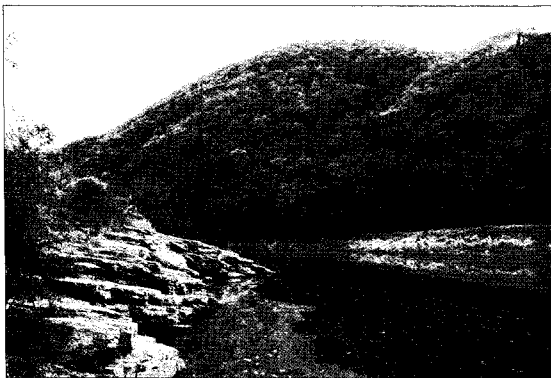
반구대 암각화는 “ㄱ”자로 꺾어진 들벼랑 아래 바다동물과 육식동물을 포함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처음의 그림은 선사인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고래나 수렵생활들을 한 단면을 볼 수 있고, 자연 숭배나 원시 종교로 보이는 태양신을 모신 흔적도 살펴볼 수 있다. 암각화의 내용을 보면 인물상으로는 고래잡이를 하는 어부, 탈을 쓴 제사장, 육지 동물을 잡는 사냥군 등이 있으며, 동물상으로는 사슴, 호랑이, 멧돼지, 고래 등이고, 이와 함께 짐승을 잡는 그물, 덧 등 다양한 그림들이 200여 곳 그려져 있다. 이 암각화는 바위면을 쪼아가

는 기법으로 선과 점을 번갈아가면서 단순하게 새겼으며, 마치 고래나 육식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과 역동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자연적인 양식과 추상적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신석기 후기나 청동기 시대에 강과 하천과 바다를 접한 원시적인 사냥술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경전진기지로 지난 1960년 대만 하더라도 회유하는 고래들을 포획하였으나, 현재는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래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회유하는 고래는 참고래, 브라이드, 밍크고래, 흑등고래 등이 있으나²³⁾ 과거기록을 살펴보면 수염고래 종류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등 많은 고래 등이 울산만에서 포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그림 8) 대곡천 반구대 앞

이런 것을 종합하여 유추해 보면 전전리 각석보다 약 2km 아래쪽의 대곡리 암각화가 더 오래전에 새겨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자연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지구가 처음 생기고 바다와 인간들의 생활처인 강과 하천의 경계를 이해하면 선사인들의 본거지가 수렵이나 어업활동들의 원천적인 면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계적인 국보급 문화재를 문화재관리청의 미온적인 자세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암각화는 청태가 끼고 백화현상이 날로 갈수록 진행되고 있으며, 대곡천은 해마다 일정시기가 되면 부영양화 현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절마 다 닳아버리기가 하겠냐?” 하는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방치한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 갈 것이다. 비록 희미한 글자나 흔적 없는 그림의 한 단면일지언정, 울산의 옛 선사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영구 보존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당연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등을 구분하는 방법은 인간이 도구로 자신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청동기시대 이후를 흔히 역사시대, 그 이전의 석기시대를 선사시대라 이른다. 선사시대²⁴⁾를 구석기, 신석기로 구분하는 방법은 돌을 기준으로 한 시대법을 이용하므로, 선사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선사인 나름대로 힘차게 그들의 역사를 대변하는 몸부림들이 그 방대한 그림들로 매꾸어 왔을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울산시 다운동 유적²⁵⁾에서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청동기 시대로 추정하는 옥현 유적²⁶⁾에서도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청동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철기가 등장한 기원전 3세

23) 해양수산부, 한반도 연안 고래류, 2000.

24) 선사시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헌 기록들이 남겨지기 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력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를 선사시대라 이른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로 구분되는데, 울산지역에는 이들의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모두 확인된 바 있다.

25) 울산시 중구 다운동 산 162번지 일원으로 1995년에 처음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그 위로는 삼국시대의 목관묘와 석곽묘 등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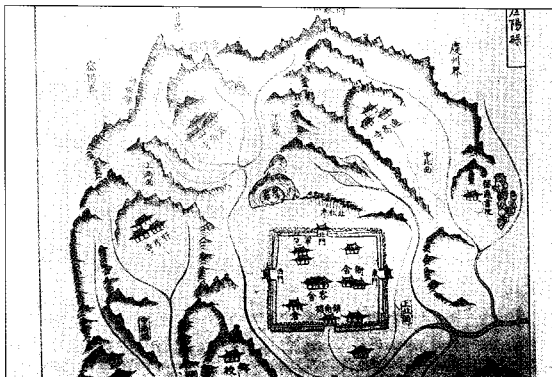
26) 울산시 무거동 489번지 일원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전, 삼국시대 수전 등이 조사되었고, 구석기 유물도 채집되었다. 이곳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논은 소구획된 논으로 선사, 고대의 농경문화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기까지를 말하며, 대표적인 이곳 울산의 유적으로는 검단리 유적을 비롯하여 울산 전역에 걸쳐 선사인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곳 천전리 암각화는 선사시대로 추정하는 다양한 그림들과 각석들이 전면에서 각석되어 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는 울산의 해안선을 따라 조개무지가 발견된 황성동 세죽패총²⁷⁾을 들 수 있으며, 울산지방의 다양한 선사인들의 발자취들이 물가나 강역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울산지방의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로는 우선 검단리 유적이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환호집락이 전면적으로 발굴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무문토기와 단도마연토기등등 반월형 토기를 비롯한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림 9) 울산부 지도(여지도 속종-영조조)



(그림 10) 언암현 지도(여지도 속종-영조조)

또 천상리 유적은 태화강 강역의 나지막한 구릉지로서 농경과 어로를 주로 하였으리라 추측되나, 단순한 자연촌으로 보기 어려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넓은 범위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화정 유적지에서는 입지가 좁은 해안 구릉지대로 바다를 무대로 한 생활 터전을 읽을 수 있었으며, 출토 유물로는 무문토기를 비롯한 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와 어망추가 발견되었고, 최초로 신석기시대의 태선문과 빗살무늬토기 파편들이 채집되었다.

또 연암동 유적지에서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공명문, 사선문이 새겨진 무문토기류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촉과 석부 그리고 농경의 증거가 되는 반월형 석도와 어망추도 발견되었다. 아음동 유적지에서도 호형토기와 파수부심발형토기, 발형토기 등의 무문토기와 마제석검, 환상석부유경식 석촉 등 석기류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청동기 시대의 주요 유적들을 살펴보았으며, 언제부터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곳 울산지방은 선사시대로부터 다양한 인간 활동들이 있어온 곳으로 보여진다.

2.5 울산 태화강의 명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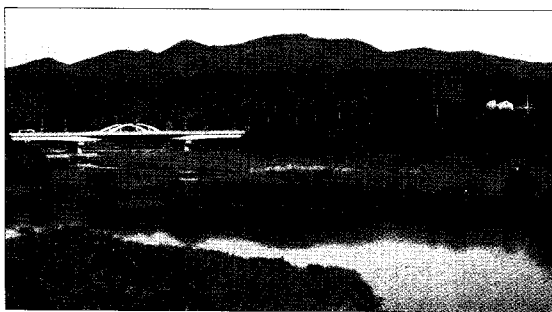
태화강의 종류인 울산구 범서읍 입암리에 '입암(立巖)'이 우뚝 서 있다. 입암은 <울산읍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천바위는 한 용소 속에 포개진 바위가 뿌리를 이루어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고 둘레의 크기도 수십 길이나 되는데, 그 바위 사이사이에 초목이 자라서 피져 있으며 동쪽에는 푸른 절벽이 가파르게 잘려 있다. 또 '입암정' 조에는 입암정은 선바위 옆의 낭떠러지 위에 부사(府使) 이정인(李廷仁)이 지은 것으로 정자는 모두 두 칸이고, 또 당옆에 세 칸짜리 집이 있는데, 은암암(隱巖庵)이라고 부른다. 앞에는 넓은 들을 내려다 볼 수 있고, 굽어보면 깊은 소에 우뚝 선 기암이 있으니 참으로 볼만한 절경이다."²⁸⁾라고 적고 있다.

더불어 입암정기(立巖亭記)에는 부사 이정인이 지었다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정자는 바위 때문에 만든 것이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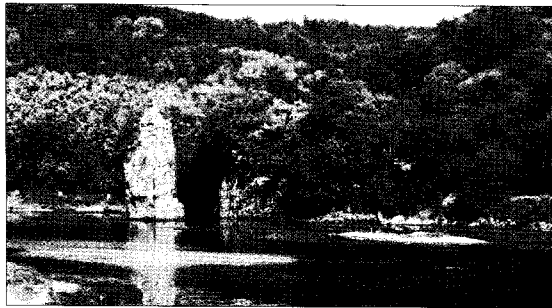
27) 울산시 남구 황성동 451번지 일대로서 유적의 형성기간은 탄화물 분석결과 BC 5700-5100년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패총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패총에서 확인된 유구는 둥근모양의 구덩이로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낚시 바늘과 석부, 작살, 투박조개로 만든 괄찌 등의 유물과 멧돼지 시슴, 여우, 고래, 멧곰, 상어, 송어, 홍합, 가리비, 피조개, 우럭 등의 자연유물이 출토되었다.

28) 立巖在白龍潭中 巖石成根 高出數十丈 大可數十圍 巖間草樹扶疏 東邊蒼壁參載 立巖亭在立巖崖上 府使李廷仁所築 亭凡二間皆堂傍有三間屋 名隱巖庵 前臨大野 俯眺深潭 屹然奇巖 眞絕勝社觀

바위가 없었으면 정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부의 앞에 있는 큰 내가 강을 이루고 있는데 내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 십여리를 가면 물이 빙빙 돌아 소를 이루는 곳이 있는데 넓이는 수백 묘 가량이나 되고, 어떤 짐승이 살고 있어서 해가 가물 때마다 비를 빌면 곧 영험이 있는 고로 이 이름을 ‘한용소’라 한다. 그 소안에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어, 우뚝 솟아 기이한 석벽을 이루고 있어 이를 우러러 보면 우뚝 솟은 촛대 바위인지라 그 때문에 이 이름을 ‘입암’이라 하였다.”²⁹⁾ 고 전한다.



(그림 11) 울주군 범서면 입암



(그림 12) 울주군 입암(은암)

또한 태화강 하류의 태화루에 대한 기록은 울산의 고대 문헌에서 찾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증국여지승람) ‘루정(樓亭)’ 조에 태화루(大和樓)는 고을 서남쪽 5리에 있다… 권근(權近)의 기문(記文)에 이르기를 “울산 고을은 동쪽과 남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멀다. 고을 서쪽 수리나 되는 곳에 큰 내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으로 꺾이어 바다로 들어간다. 그 내가 동으로 꺾이는 곳에 물이 더욱 넓고 깊으니 이곳을 황룡연(黃龍淵)이라 한다… 신라 때에 비로소 절을 이 북쪽 언덕에 세우고 태화(大和)라 하였는데, 서남쪽으로 누각을 이루었고 아래로는 못에 임했으

며, 산은 들 밖으로 비껴나가고, 바다는 하늘가에 닿아 있어 여기 올라가 구경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가장 기이하고 빼어나다.”³⁰⁾ 라고 적고 있다.

같은 글에서도 김극기(金克己)의 시서(詩序)에 이르기를, “계림으로부터 남쪽으로 가서 물이 들고 산이 바뀌어 하루 해를 다 가면 바닷가에 이르러 부(府)가 있으니 이곳을 흥례(興禮)라고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계변천신(戒邊天神)이 학을 타고 신두산(神頭山)에 내려와서 사람의 수목(壽祿)을 주장했다 하여 혹 이곳을 학성(鶴城)이라 한다고 한다. 성 서남쪽에 강이 있으니 이것이 태화강(大和江)이며, 길이가 6·7리나 된다. 강물이 넘실넘실하여 만경이 한결같이 푸르고 붉은 언덕과 푸른 벽의 그림자는 마치 거울 속에 거꾸러지는 것이 고희두(顧虎頭)의 감자(甘蔗) 먹는 것과 같다. 길이 멀수록 경치가 더욱 더 아름다운 것은 용두(龍頭)이다. 용두를 베고 우뚝 일어나 서쪽으로 취봉(鷲峯)의 드높은 봉우리에 닿고, 남쪽으로 경해(鯨海)의 넓고 넓은 물결에 임한 것은 태화사(大和寺)이다.”³¹⁾ 라고 적고 있다.

또 서거정(徐巨正)의 중신기(重新記)에 이르기를, “내 일찍이 남도(南道)에 놀다가 두루 이름난 곳을 찾아 누(樓)로는 축석(矗石)·영남(嶺南)·명원(明遠)·영호(映湖)·쌍벽(雙碧)을 보았고, 대(臺)로는 해운(海雲)·월영(月影)·관어(觀魚)를 보았는데, 참으로 이른바 기이하고 특이한 경치 좋은 곳이었다. 맨 마지막으로 장차 울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태화루의 경치가 중단 말을 듣고 한번 오르고 싶었다. 울산 강에 이르러 한 누각을 바라다보니, 층층으로 언덕과 끊어진 절벽 위에 높달랴게 서있어 푸른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는지라, 그 웅장한 것을 사랑해서 물으니 태화루라고 한다… 눈

29) 立巖亭記 府使李廷仁 “亭爲巖作也 無是巖則將焉用亭也 府治之前大川成江 綠川而行二十餘里 水匯而成潭 廣可數百畝 而有物居之 每歲旱暵雨則輒有驗 故名之曰白龍潭 潭之中有石特立 高可數十丈 而轟成奇巖 仰之纒巖名之曰立巖”

30) 大和樓在郡西南五里 權近記 蔚爲州東南際巨海去王京最遐距州之西數里有大川南流東折而入海 其東折也 水尤宏濶而澄深 曰黃龍淵 ……新羅之時始置寺于北崖之上曰大和西南起樓下臨瀾水山橫野外 海樓天涯覽之矣 最爲奇勝 ……(신증국여지승람) 권 22, ‘樓亭’ 條

31) ……金克己詩序 自鷄林南行水迴山轉窮日之力至于海 歸有府曰 興禮世傳戒邊天神駕鶴降神頭山主人壽祿 故或謂之鷄城城之西南有江 曰大和江 曰大和江行六七里 溶溶漾漾 一碧萬頃丹崖翠壁 倒鏡中如顧虎頭之食甘(甘蔗) 路遙遠而境逾佳者龍頭也 沈龍頭而突起西連鷲峰之巔 南臨鯨海之森漫者大和寺也. (신증국여지승람) 권 22, 울산군條

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 경치가 내가 전에 본 누대들과 비슷한데 광원(曠遠)한 것은 오히려 이곳이 나은 것 같았다. 또 내가 생각하니 설곡(雪谷) 정선생(鄭先生)이 부(賦) 팔영(八詠)을 지었고, 가정(稼亭) 이선생(李先生)이 우리 외조(外祖)에게 화답한 글이 있으며, 양촌(陽村) 권선생(權先生)의 기(記)가 또 있었는데, 제판(題板)을 쳐다보니 지금은 모두 없었다.”³²⁾라고 적고 있다.

정포(鄭浦)의 팔영 가운데 대화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붉은 난간은 관도에 임해 있고, 푸른 물결은 절 문을 격했어라. 시끄러운 수레 소리 동헌으로 돌려보내니, 노래 소리 날마다 끊이지 않네. 가랑비 속에 꽃은 나무 가지에 피고, 봄바람 이는 곳술이 잔에 가득하네. 고금에 떠나는 한, 달은 황혼인데, 고기잡이 노랫소리 앞마을에서 일어나네.” 하였다. 또 이곡의 시에, “철기(鐵騎)를 강 언덕에 벌였으니, 붉은 깃대 성문에 나오네. 오두(遼頭) 맞아서 빈헌(賓軒)에 보내니, 손님은 또한 어찌 그리 분주한가. 물빛은 노래하는 부채를 흔들고, 꽃향기는 술잔에 침노하네. 다만 지나가는 손들 시끄러움이 없어, 아침저녁 순박한 좋은 산촌일세.”³³⁾하였다.

이같이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은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하고 물빛이 맑아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태화루 루각은 임진왜란으로 폐허된 지가 오래 되었다.

3. 결론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도구는 바로 손이었다. 그 손이 가장 먼저 움켜쥐고 새로운 창조물을 빚어냈다. 우리의 옛 선사인들은 동굴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연모와 석기를 통한 자연적인 무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무기와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맹수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하여 동굴에서 벗어나 가까운 강과 하천에서 무리지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육식동물들을 포획하여 털을 재료로 한 원시적인 옷과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으며, 돌과 돌을 이용하여 불을 일으킴을 알았다.

또한 돌을 깨거나 날카롭게 하여 집승을 잡거나 석기를 이용한 어로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면서 한층 발달된 두뇌를 활용하였다. 이리하여 선사인들은 강과 하천에서 맨 처음 사냥과 어로 활동을 하여 왔다. 이로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동굴이나 암벽에다 혼신의 정열을 쏟아 그림들을 정성껏 그려왔고, 하늘과 산천초목에 깃들여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기도를 올렸으며, 일정한 시기를 통하여 인간들의 힘을 발휘하려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곳 태화강역의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도 이러한 선사인들의 우주자연의 사상을 담았으리라 여겨진다.

끝으로 울산시 태화강역의 상류에서 하류를 내려오면서 울산의 발원지를 비롯하여 강과 하천에 산재한 국보급 문화재와 역사 유적지, 그리고 주요 명승지를 살펴보았다. 우리에게 강과 하천은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피와 핏줄 같은 것이다. 근자에 울산시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의 도시로 황폐화된 울산의 강과 하천을 생태도시로 복원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매맞추어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태화루도 결합하여 복원한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울산의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여 울산의 강과 하천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이영춘, 울산의 암각화와 해면운동, 울산문화원, 2000.
- 김송태, 울산지년날의 얼굴, 울산항토사 연구회, 1997.
- 해양수산부, 한반도 연안 고래류, 2000.
- 최길성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1.
- 신평 역주, 지리요결, 동학사, 1993.
- 강환용,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연구논문, 2006.
- 고려사지리지
- 경상도지리지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신증동국여지승람
- 울산광역시사
- 울산읍지

32) 徐居正重新記 余嘗遊南道歷訪名區於樓 得轟石嶺南明遠噴湖雙碧於臺 得海雲月影觀魚真 所謂瓊奇特絕形勝之地也 最後通蔚聞大和之樓之勝 欲一快登到蔚江望見一樓 蔚然於巖崖絕碧之上 俯臨澄碧愛其峻壯賦之曰大和... 目遊矚其形勝與向之所稱 樓臺可相甲乙而曠遠則過之 仍念 雪谷鄭先生賦八詠 稼亭李先生有和 吾外祖陽村權先生 亦有記仰視題板皆無之, 《신증여지승람》 권 22, 樓亭條.

33) 鄭誥詩 丹樓臨官道 蒼波隔寺門 喧闐車騎送鐘軒 歌吹日來繁 細雨花生樹 春風酒滿尊 古今離恨月黃昏 漁唱起前村 李毅詩 鐵騎排江岸 紅旗出郡門 遶頭來此送賓賓 賓從亦何繁 水色搖歌扇 花香撲酒奠 但無過客正農昏 淨朴好山村